

2일 Market Index	
코스피 7648.09 (-655.32)	코스닥 866.72 (-62.63)
금리 (연고래 3년) 3.747 (-0.044)	환율 (환/달러) 1551.25 (-3.62)

metro® 경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천무 발판
우주방산 키운다
0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뒷줄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박훈근 기획처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이철 삼성디스플레이 대표, 박수현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환 충북지사. /뉴스

“삼성 HBM생산 결단, 충청 위상 강화”

충청권에 392조 투자
이재명 대통령, 국민보고회
삼전 140조, 하이닉스 100조 등
“기업들의 결정 빛 발하게
정부가 지원·성공시킬 것”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이 충청 지역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부품, 바이오 등의 분야에 약 39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삼성 140조원을 비롯해 SK가 100조원, 셀트리온이 2조원 가량을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 그의 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에 약 1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가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지방위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전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제2캠퍼스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향해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며 격려했다. 이재용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규모 반도체 지역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분산, 지방 중심 성장 전략”이라며 “가능하면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입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지역에 가장 효율이 높은 방법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충청권의 산업 위상을 부각하며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민국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그리고 이러한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권역 안에 모여

서 강력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충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삼성의 HBM(고대역폭메모리)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삼성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HBM 생산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지로서 충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이러한 결정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3면에 계속>

이재명 기자 syj@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AI시대 성공적 노후 위한 자산전략

최근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생 자산관리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00세 플러스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오는 7월 9일(목요일)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 및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AI 시대에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상속, 증여 전략, 부동산, 금융자산, 대체투자 및 미래투자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2)
- ◆ 주 제 :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
- ◆ 일 시 : 7월 9일(목)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1시40분~2시)
-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 의 :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삼성 계열사, 성과급 논의 도미노

삼성전기 이어 DP·SDI 등 성과급 제도개선 논의 확산

삼성전기가 삼성 계열사 중 처음으로 초과이익성과급(OPI) 제원을 영업이익의 10%로 확정된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등 주요 계열사로 성과급 제도 개선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역대 최고 실적 달성 시 별도 보상하는 이른바 '최고실적 동기부여 프로그램' 도입을 놓고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OPI는 유지하되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왔을 때 추가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아직 재원 산정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협의 초기 단계다.

이와 별도로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기에 이어 장기 성과 연동 보상제인 성과연동주식보상(PSU)을 올해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장사인 삼성디스플레이는 자사주가 없는 만큼 삼성전자 주식 가치와 자체 영업이익에 연동해 산정한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2022년 역대 최고 실적에도 별도

특별보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지난 3월 성과 연동 보상제 도입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계열사 성과급 개편의 신호탄은 삼성전기가 쏘아 올랐다. 삼성전기는 지난달 18~30일 진행된 임직원 투표에서 참여자의 97.1%가 찬성함에 따라 계열사 최초로 OPI 재원을 기존 경제적부가치(EVA)의 20%에서 영업이익의 10%로 변경했다.

올해 전사 연결 기준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내년 1월부터 현금으로 지급하며 개인별 상한은 연봉의 50%로 유지된다. 증권가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약 1조 5000억원을 적용하면 성과급 재원은 15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지난해 1조 7224억원의 영업손실로 OPI 지급률이 0%였던 삼성SDI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앞서 삼성전자가 적자를 낸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에도 최소 1억 6000만원 수준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기로 한 사례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기자 koojia_lee@metro®

코스피, 7600선까지 주저 않아 '검은 목요일'

7.89% 하락한 7648.09 마감
삼전 9%, 하이닉스 14% '뚝'
하루만에 시총 400조 이상 증발

2일 코스피가 '8천피'에서 밀려나 7600선으로 주저앉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9%, 14% 넘게 하락했다.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에 따른 반도체 수요 위축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를 침몰시켰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55.32포인트(7.89%) 떨어진 7648.09로 마감했다. 외국인이 4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이 6조 2500억원 어치를 사들였지만, 하락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62.63포인트(6.74%) 내린 866.72

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선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연달아 발동됐다. 코스피 매도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도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낮추는 장치다. 코스피 200선물이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투자심리 악화로 이날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400조원 이상 증발했다. 9.06% 급락한 삼성전자는 30만원이 무너졌다. 외국인은 7월 들어 이틀동안 삼성전자를 1조 7000억원 가까이 매도했다. 이날 종가는 28만 6000원. SK하이닉스는 14.57% 하락해 218만 7000원까지 밀려났다.

이날 하락의 방아쇠는 메타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메타가 내부

적으로 '메타 컴퓨트' 계획을 출범해 자사의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클라우드 사업 모델을 구상 중이라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은 AI 연산 자원이 공급 과잉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번지면서 그간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호황을 누리던 반도체·인프라 종목에 충격을 줬다. 메모리 반도체 3대장으로 꼽히는 미국 마이크론은 전일 10.57% 폭락했다. 샌디스크(-10.62%), AMD(-6.89%), 인텔(-9.03%) 등 AI 반도체 기업도 일제히 하락했다.

그 영향으로 대만 자취안지수(-0.58%)와 일본 닛케이255평균주가(-2.47%) 등 아시아 증시도 파랗게 질렸다. 시장에서는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인 마이클 버리의 가벼운 입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미 CNBC 등에 따르면 버리는 지난 29일 발표된 한국 메모리 업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두고 “오늘 릴리의 직접적인 계기는 한국에서 발표된 대규모 투자 계획”이라며 “하지만 나는 이것이 끝의 시작(beginning of the end)”이라고 본다.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미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오후 3시 기준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63.2%였다. 1개월 전 예측(20.5%)보다 42.7% 포인트 뛰었다.

이재명 기자 godhe@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6일부터 외환시장 24시간 체제...환율 변동성 완화 기대
▲ 대통령 국정 지지율 58%...민주당 42%·국민의힘 20%
/사진 뉴스

▲ 육군 “포천 예비군훈련 사망은 지병 탓...의무 지원체계 강화”
▲ 배재고 논란 정치권까지 확대...“과한 조치” vs “엄중 책임”

▲ ‘캠보디아 범죄단지’ 제보자 5년6개월형...수사 협조에 일부 감형
▲ 시민단체 홍명보·정몽규 고발 “선수에겐 고통, 국민엔 모욕 줘”